



김원덕 | (재)2013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환경안전부
환경위생팀장
(ssongam@korea.kr)

강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2

생명의 땅 순천만 습지와 생태 그리고 인간과 자연

<http://www.2013expo.or.kr>

들어가며

한반도 남쪽의 작은 연안습지로 묻혀있던 순천만이 2013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문화관광 자원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천시민과 함께한 순천만 브랜드화는 2002년에 관광객 10만명에 불과했던 순천만이 2012년에는 환경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진 생태관광의 모델로 부각되면서 수많은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포함한 23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선진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순천시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관, 용산전망대, 갈대테크, 동천둔치, 순천문학관 등을 관광객이 편안하게 자연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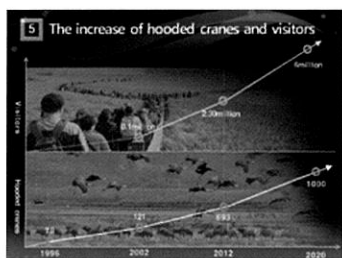
순천만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특히 S자 수로의 경치가 빼어난 용산전망대는 급경사로 오르기 어렵고 꼭대기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2%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리



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경사의 우회 산책로가 설치되었고, 중간에 순천만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 1개소와 주전 망대를 확장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중간전망대가 완공되어 관광객이 2%에서 20%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회산책로가 완공되어 구두를 신거나 정장 차림으로도 누구나 쉽게 전망대까지 갈 수 있도록 완비되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에 도착하면 바로 보이는 자연생태관의 진출입로의 개선과 생태연못 조성, 갈대데크 확장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보다 더 편리하도록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순천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과 지역공예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순천만 공예특산품관로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순천만을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2007년에 350마리이던 흑두루미가 매년 증가하여 2013년 현재에는 693마리가 순천만을

찾아오고 있으며, 1,000마리의 학(흑두루미)이 순천만을 수놓을 그 날을 위해 오늘도 대대들에 안전한 먹이와 쉼터를 새들의 보금자리 확보를 위해 전봇대 228개 제거와 들판디자인, 무논습지, 철새먹이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하여 흑두루미와 새들을 가까이서 탐조할 수 있도록 순천만 탐조대로 리모델링하였고,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새를 보는 평지 천문대에서 다양한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순천만 대대포구에서 순천문학관, 맑은물관리센터 2,500미터 구간에 조성된 동천생태습지는 기존에 논으로 사용되던 둔치를 습지로 복원한 결과 노랑부리저어새, 왜가리, 백로, 청둥오리 등의 다양한 새들에게는 보금자리로 회복되었고, 탐방열차를 타고 관람하는 관광객에게는 10여 미터 앞에서 펼쳐지는 새들의 군무와 갈대가 어우러져 감탄의 탄성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태자원인 갈대, 수로, 습지 등은 온전한 상태로 보전하고 전망대, 탐조대, 데크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편리하게 사용도록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방치된 둔치를 습지로 복원하여 다양한 서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13년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과 세계에게 온전하게 보전된 자연유산의 순천만이 생태관광의 효과가 더욱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순천만 모두가 함께 해요.

아름다운 세상!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정원박람회 입니다.





지금부터는 순천만 갈대의 소리, 흑두루미의 날갯짓, 칠면초의 색깔, 짱뚱어의 몸짓을 그대로 옮겨 놓은 살아 있는 자연의 몸짓 2013순천만정원박람회가 소개해 드립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84일간 순천만과 순천시 품덕동 오천동 일대에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열립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정원박람회에는 세계 23여 개 나라의 작가와 기업, 그리고 도시가 참가해 84여 개의 다양한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박람회장 안에는 큰 아름드리나무 1만 5,000그루를 합쳐 42만 4,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이라는 부제에 맞게 사람과 자연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생태와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행사를 진행해 많은 사람에게 거대한 생태 놀이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박람회장은 크게 세계정원 구역, 습지센터 구역, 수목원 구역, 습지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정원 구역은 56만 4000제곱미터(약 17만 평) 규모로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11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감상할 수 있

습니다.

양산백과 축대영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중국정원, 베르사유 정원을 떠올리게 하는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프랑스정원, 포츠담의 칼 피르스터 썬 큰 정원을 모델로 디자인 독일정원, 풍차와 툼립이 화려한 색의 향연을



을 펼칠 네델란드정원,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유럽풍의 미국정원, 오렌지 나무와 비슷한 유자나무

가 가지런한 스페인정원, 르네상스 로마시대 깔끔하고 잘 정리된 이탈리아정원, 빅토리아 시대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공간인 영국정원, 사실적인 미니어처가 보여주는 정교함을 감탄하게 하는 일본정원, 열대식물과 살라타이 건축물, 아름다운 연못, 대나무 구조물이 이야기처럼 조성된 태국정원까지 10개의 외국정원이 펼쳐집니다.

특히, 한국정원은 우리의 옛 정취를 마음껏 느껴 볼 수 있는 곳으로 궁궐의 정원, 군자의 정원, 소망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궐의 정원은 경복궁 교태전의 후원의 문, 아미산

화계, 굴뚝의 부조 장식과 다양한 문양, 그리고 왕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만들어졌던 불로문과 어수문, 만월문이 저 마다의 자리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정원은 옛날 선비들이 앓아 시를 읊고 경치를 즐겼을 것만 같은 세심정이 운치를 더하고, 서석지에는 정겹게 느껴지는 험문과 낮은 담장이 이어지며, 광풍각은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지지않을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정원에서는 서민들의 정원으로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의 무사안일을 두손 모아 빌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표한한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애뜻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영국의 찰스 쟁스가 순천만에서부터 시작, 도심과 주변을 살살이 돌아보고

얻은 영감으로 디자인한 '순천호수정원', 그리고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해우소가는 길', 'DMZ' 작품으로 금상과 최고상을 받은 황지해 작가가 디자인한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박람회장에서 손꼽히는 명소입니다.

습지센터 구역에 있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는 도로와 옥상을 하나로 연결한 뒤 잔디를 간 지붕건축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등으로 난방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습지 영상을 보고 순천만 서식 환경과 철새, 야생동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습지센터 구역과 세계정원 구역을 연결하는 꿈의 다리(길이 175미터, 폭 7.3미터)도 박람회가 자랑하

는 또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다리 위 컨테이너 30개를 설치해 바깥에는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한글 디자인을 전시하고 안에는 전 세계 어린이의 꿈이 담긴 그림 14만 5,000여 점을 전시하는 물

위의 전시관입니다.

수목원 구역은 25만 3,000제곱미터(7만 6,500여 평)의 면적에 박람회의 상징인 에코지오탑과 다양한 수목을 볼 수 있는 나무도감원, 순천을 대표하는 관목인 철쭉을 심은 철쭉정원 등이 여러 산책길과 함께 조성되어 여유 있는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장과 특별한 나무 이야기입니다. 5분 전 은행나무이야기입니다. 순천시 석현동 주택에서 자라던 아름드리 은행나무인데, 집주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베어내려던 것을 순천대학교 교수가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정원박람회장에 기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기증을 약속했던 집주인은 건물을 짓기 위해 시간이 쫓기면서 할 수 없이 나무를 베어 버려던 것을 정원박람회 관계자가 가까스로 살려 냈습니다. 5분만 늦었더라도 아마 이 나무는 잘려나갔을 것입니다.

기막힌 모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모과나무를 두고 열매 모양에, 향기에, 맛에 세 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습지센터 앞에 심어진 이 모과나무에는 기막힌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300년이나 된 나이와 크기 때문에 한번, 나무를 조사하려 갔다가 우연히 혼자 사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된 인연 때문에 두 번, 이식을 극구 반대하던 마을 주민들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에 기증 결정을 내린 따뜻한 마음에 세 번, 이렇게 감동으로 깜짝 놀라게 한 나무입니다.

그 외에도 근심 먹는 은행나무, 위풍당당 팽나무, 도시숲 히어리, 숲 속의 연인목, 질투하는 생강나무, 한 몸 에 있는 팽나무와 때죽나무,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 화려한 변신 포플러, 흥상리 매화나무, 사슴 뿔 닮은 노각나무, 88고속도로 메타쉐콰이어, 조수미 도전나무, 기성용 꿈나무, 장사익의 소리나무, 히팅크 희망나무처럼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생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정원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진 저마다의 특색 있는 정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